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 정 중호(계명대) 예언서와 타종교 - 이사야 19장 16-25절을 중심으로 53
이집트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는 구절이 포함된 이사야 19장 16-25장의 역사적 배경과 이집트의 종교상황을 점검하면서 예언서의 종교관을 파악하려는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신론과 단일신론, 그리고 유일신론이 모두 나타나는 예언서의 신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이사야 19장의 본문이 종교 간의 대화를 열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Chong, Joong Ho Prophets and other religions - Focusing on Isaiah 19:16-25 53

예언서와 타 종교

- 사 19장 16-25절을 중심으로¹⁾ -

정 중호 | 계명대

1. 들어가기

“나의 백성 이집트여”(사 19: 25)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앗수르에게도 “나의 손으로 만든 앗수르여”(사 19: 25)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려진 표현인 “복이 되리라”(창 12: 2)라는 표현도 이집트와 앗수르의 사명으로 나타난다(사 19: 24-25).

비록 이집트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의 백성”이라 불려주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표현은 유일신관에 젖어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 19장 16-25절, 특히 24-25절을 집중적으로 해석하면서, 과연 이 본문이 종교간의 대화를 열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1) “본 연구는 200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앗수르와 이집트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면서, 앗수르 왕 사르곤 2세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은 사 19장 24-25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예언서에 나타나는 다신론과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을 비교 분석하면서 야훼 종교의 신관을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2. 앗수르와 이집트의 우호 관계

일반적으로 앗수르와 이집트는 적대적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을 서로 장악하려는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앗수르와 이집트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주전 853년에는 이집트가 앗수르와 카르카르(Qarqar) 전투를 벌였는데,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 지역의 국가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앗수르에 대항하였다.²⁾ 그러나 이집트는 이 연합군의 맹주는 아니었다. 이집트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탈 전쟁을 일삼고 영토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앗수르는 주전 8세기 후반 티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부터 정책을 변경시켰다. 약소 국가를 굴복시키고 그 영토까지 합병해버린 것이다.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 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앗수르의 영토가 되었고 앗수르는 관리를 임명해서 사마리아를 통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며, 사마리아는 타 지역의 백성들로 채워졌다(왕하 17: 6=18: 11).³⁾

앗수르는 페니키아뿐만 아니라 필리스티아에도 관리를 임명하여 통치하였다. 앗수르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케푸(qepu)라 부르는 앗수르 관리가 담당하였다.⁴⁾ 이러한 앗수르의 정책 변화에 이집트도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앗수르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 대한 앗수르의 영향

2) ANET, 278-279쪽.

3) 김 태훈, "앗시리아 역사문서와 사마리아 함락," 「구약논단」 15집(2003년 10월), 222쪽.

4) N. Na'aman, "The Brook of Egypt and Assyrian Policy on the Board of Egypt," *Tel Aviv* 6(1979), 84; M. Elat,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Neo-Assyrian Empire with Egypt," *JAO* 98(1978), 20-34쪽.

력을 증대시켜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 있었다. 따라서 앗수르는 이집트에 대해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칼라 프리즘(Calah Prism)에 의하면, 주전 720년 앗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출범시켰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폐쇄된 이집트의 무역센터(the sealed [ka]r-ri of Egypt)를 개방했다. 앗수르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⁵⁾

다만 당시 이집트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앗수르와 우호적인 왕조는 부바스티스 왕조였으며, 사이스 왕조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⁶⁾

사 19장 23절에는 이집트 사람과 앗수르 사람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끝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וְעָבְדוּ מִצְרַיִם אֶת־אֲשׁוּר׃ (웨아브두 미츠라임 엘-아슈르)

이 구절을 「개정」에는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오히려 앞의 문맥과 칼라 프리즘을 근거로 “이집트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더불어 일할 것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쟁점은 עָבַד(아바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하다,’ ‘경배(예배)하다,’ ‘섬기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경배(예배)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의미상 비약이 심한 번역이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앗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 보아도, 이집트와 앗수르 백성 전체가 야훼 종교를 숭상했다는 사실은 없었고,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5) Calah Prism (Nimrud Prism), Fragment D, Col. IV, ll. 42-49; H. Tadmor, “The Campaigns of Sargon II of Assur,” 34쪽.

6) A. Spalinger, “The Year 712 B.C. and its Implications for Egyptian History,” *JARCE* 10 (1973), 97쪽.

오히려 앗수르 왕 사르곤 시대에 앗수르와 이집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활발히 경제 활동을 펼친 것을 주목하면서, 함께 경제 활동을 도모했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LXX에서 “이집트 사람이 앗수르 사람을 섬길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문맥상 과도한 비약이며 의도적인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사 19장 16-25절 전체가 이집트의 희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가 앗수르를 섬기게 된다는 예언은 문맥상 부적합하다.

3. 이집트의 종교 상황

이집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도시가 있다는 것은(사 19: 18) 유대인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이주하였거나, 용병 혹은 다른 이유로 이집트에 이주한 사람들의 도시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는 도시는 유대인 용병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야훼 성전까지 있었다.

이집트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종교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사는 이집트에 야훼의 제단이 세워지고 이집트인이 제사를 드리며 간구 하고 야훼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 예언하였다(사 19: 19-22).

우선 이집트의 국경에 야훼를 위하여 마체바가 세워진다(19: 19b)는 사건을 점검해 보자.⁷⁾ 마체바는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종교 의식에 활용되는 일종의 성상(iconogarchy)이라 볼 수 있다. 이집트 북쪽은 유다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블레셋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경 부근에도 영토를 확장하였다(대상 4: 34-47). 이집트의 전통적 국경은 일명 “이집트 개울”(Brook of Egypt)이라 부르는 와디 베소르(Wadi Besor)이다. 이 지역은 가자 남쪽 지역으로, 앗수르 왕 티글랏빌레셀은 여기에다 자신의 비석을 세웠다(주전 734년). 이집트 국경에 마체바, 즉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도 야훼를 위한 마체바라면, 그것은 유다의 히스기야가 세운 마체바 일 가능성이 높다. 즉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유다 땅이라는 표시로 그 기둥을 세웠을 것이며,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의 이름으로 마체바를 세웠을 것이

7) 마체바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장 대규, “이사야 6장의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28집(2008년 6월), 71-82쪽.

다.8) 따라서 사 19장 19절의 마체바는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 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유대인이 거주하고 히브리어가 통용되는 이집트의 다섯 도시들이 야훼께 서약한 도시라고 했을 때, 그 도시에 야훼 성전 혹은 야훼 제단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사 19: 19a, 20a). 이집트 도시 엘레판틴에 야훼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도시들에도 야훼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9) 그리고 신명기 법에도 팔레스타인 외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야훼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신 12장).

이집트에 있는 제단은 유대인들만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다. 화목제와 소제, 즉 감사 제사를 이집트 사람들이 야훼께 드리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당해 이집트 사람들이 야훼께 부르짖으면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도 있다(사 19: 21).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누리는 특권을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집트인 가운데 일부이며, 이집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4. 나의 백성 이집트여, 나의 손으로 만든 앗수르여

이집트 백성을 '나(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 과격적이어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LXX는 "내 백성 이집트"에 전치사를 첨가하여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LXX 특유의 의도적인 번역이었다. 이사야 LXX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도 변경시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야말로 약속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남은 자'라는 단어에는 "이집트에 있는"이라는 구절을 첨가하여 이집트의 디아스포라가 바로 '남은 자'임을 강조하였다(사 11: 16; 28: 5). 따라서 LXX를 근거로 하여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LXX의 의도적인 변경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원래의 의미가 이집

8)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마체바를 세운 적이 있었다(삼상 15: 12).

9) 유대인들이 해외에 성전을 건립하고 제사를 드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바람: L. E. Browne, "A Jewish Sanctuary in Babyonia," *JTS* 17(1916), 400-401쪽; Joong Ho Chong, "Were There Yahwistic Sanctuaries in Babylon?" *Asia Journal of Theology* 10 (1996), 198-217쪽.

트 백성 전체를 “내 백성”이라 불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내 백성 이집트”와 평행으로 나타나는 “나(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앗수르”
 (사 19: 25)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나의 손으로 만든”(יְדֵי הַמֶּלֶךְ מא아세
 야다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앗수르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는 표현은 이사야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내 백성이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
 로서(יְדֵי הַמֶּלֶךְ מא아세 야다이)”(사 60: 21)
 “너를 지으며(יָצָא 오세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יָצָא 요체르카)
 너를 도와줄 야훼가 말하노라”(사 44: 2)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יָצָא 요체르카) 나 야훼”(사 44: 24)
 “이스라엘을 지으신(יָצָא 요츠로) 야훼”(사 45: 11)

사실 이집트나 앗수르 모두 야훼 종교를 공식 종교로 하여 숭배한 적이 없
 다. 그리고 예언자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한 것도 아니었다. 야
 훼 종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나(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가 다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또한 이집트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나의 백성”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사명도 동일하게 주셨다. 즉 세상의 ‘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예언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앗수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이 될 것이라 하였다(יְבָרַךְ ... יְבָרַךְ 이호에 ... 브라카). 오히려 이스라
 엘은 이집트와 앗수르에 이어 세 번째로 ‘복’이 될 것이라 하였다(사 19:
 24).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대표자이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하며 복을 주시는 장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창 12: 2).

과연 이집트와 앗수르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인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야훼 종교는 타 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구약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유일신
 관으로 통일되어 있는가? 구약 전체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대부분 단일신론
 이며 유일신론은 후대에 나타났다. 심지어 십계명도 단일신론으로 볼 수 있

다(“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 5: 7).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의식하고 있다는 표현이기에 유일신관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약에는 단일신론 이전의 다신론적인 상황도 보존되어 있다. MT에는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신 32: 8-9)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בְּהַנְּחֵל עֲלֵינוּ יְיָ בְּהַפְרֹדֵי בְּנֵי אָדָם
도 브네 아담/지극히 높으신 분이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그 분이
인류를 나누실 때에)
אֵבֶב גְּבֻלַת עַמִּים לְמַסָּר בְּנֵי יִשְׂרָאֵל
파르 브네 이스라엘/ 그 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에 따라 민족들
의 경계를 정하셨다)
כִּי הֲלֵלֶכְךָ אַחְוֵי אִמּוֹ אַיָּאֲכֹ
브 헤벨 나할라토/참으로 아훼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요 아곱은 그
자신의 기업이라)

신 32장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בְּנֵי יִשְׂרָאֵל) 브네 이스라엘)은 본문비평 상 문제가 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LXX(하나님의 천사), Aquila(하나님의 아들들), 4QDt(하나님의 아들들) 등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차이를 살펴보면 MT 이외에는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천상의 존재인 신들임을 알 수 있다. 본문비평 결과 콥란 사본과 LXX, 그리고 Aquila를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들”(בְּנֵי אֱלֹהִים) 브네 엘로힘)로 결정할 수 있다.¹⁰⁾ 그리고 윈터(P. Winter)는 주장하기를,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였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직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수정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였다.¹¹⁾ 또한 부데(K. Budde), 코닐(C. Cornill), 뢰어(M. Loehr), 하우리(R. Hauri), 아이스펠트(O. Eissfeldt), 폰 라트(G. von Rad), 올브라이트(W. F. Albright), 셰칸(P. Skehan), 라이트(G. E. Wright), 마이어(R. Meyer) 등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하였다.¹²⁾

10) 참조: 읍 38: 7; Joong Ho Chong, “The Song of Moses and the Hoshea-Pekah Conflict,” Emory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0, 50-52쪽.

11) P. Winter, “Nochmals zu Deuteronomium 32: 8,” ZAW 75 (1963), 218-223쪽.

12) K. Budde, *Das Lied Mose's, Deut. 32*,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20), 17-20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수정했느냐는 질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본문이 고대의 문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분”(יְיִָּיִּיִּי 엘온)은 최고의 신이 되고, 그 아래에 야훼와 더불어 천상의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천상의 존재들(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을 나누었다는 것은 각 민족의 수호신들이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뜻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콤파 사본이나 Aquila 역에서 이러한 본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주전 2-3세기에 도 콤파 사본에는 다신론적인 상황의 본문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야훼(엘온)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민족별로 나누었다는 내용은 신 4장 19절과 신 29장 26절(MT 29: 25)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러 MT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수정하여 엘온과 야훼를 동일하게 만들어 다신론적인 본문을 단일신론적으로 만들었다.¹³⁾

다신론적인 상황은 고대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도 나타난다. 야곱 가족은 다른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내 라헬은 가족 신의 신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창 31: 30-35). 토라 가운데 신 10장 17절에는 야훼가 “신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어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신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시편에는 다신론적인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 시 82편에는 하나님께서

쪽; C. Cornill,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Freiburg I. B. und Leipzig: J. C. B. Mohr (Paul Siebeck), 1896), 71쪽; M. Löhr, “Das Lied des Moses,” *Protestantische Monatshefte*, 7(1903), 9쪽; G. von Rad, *Deuteronomy* (OTL),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192쪽; W. F.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XXXII,” *VT* 9 (1959), 343쪽; P. Skehan, “A Fragment of the ‘Song of Moses’ Dt. 32 (37-43) from Qumran,” *BASOR* 136(1954), 12쪽; G. E. Wright, “The Lawsuit of God A Form-Critical Study of Deuteronomy 32,” B. W. Anderson/W. Harrelson(eds.), *Israel's Prophetic Heritag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2), 28쪽; R. Meyer, “Die Bedeutung von Deuteronomium 32,8f. 43[4Q] für die Auslesung des Moseliedes,” A. Kuschke(eds.), *Verbannung und Heimkehr, Festschrift W. Rudolph*,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61), 197-209쪽.

13) 「개정」에 “지극히 높으신 분(יְיִָּיִּיִּי)”으로 번역된 ‘엘온’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신에게 주어지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명칭은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그리고 ‘모세의 노래(신 32장)’와 ‘발람의 노래(민 24: 16),’ 그리고 시편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대의 명칭으로 보이며 성경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은 명칭이다. 이 명칭은 후대에 다른 신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다니엘과 외경) 신약에도 나타난다(막 5: 7=눅 8: 28; 눅 1: 32, 35, 76; 6: 35; 행 7: 48; 16: 17; 히 7: 1). 구약에서 ‘엘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나타난다(창 14: 18-22). 그래서 F. M. Cross는 ‘엘 엘온’이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의 고대 신의 이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참조 F. M. Cross, “Yahweh and the God of the Patriarchs,” *HTR* 55(1962), 225-59쪽.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부분 ‘엘온’이라는 명칭이 야훼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신 32: 8-9; 시 7: 17; 18: 14=삼하 22: 14; 시 97: 9).

다른 신들인 “엘론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일한 신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אלהים) 브네 엘로힘)이며 다 엘론(אלון)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시 82: 6-7). 시편의 또 다른 본문에도 다신론적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들(אלהים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시 82: 1)
 ... 모든 신들이(אלהים 엘로힘) 그 분(야훼)께 경배할지어다(시 97: 7)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오(אלון 엘론)
 모든 신들(אלהים 엘로힘)보다 위에 계시니이다(시 97: 9)

이러한 다신론적인 부분을 볼 때, 초기의 야훼 종교가 타 종교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서로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상하게 된다. 구약을 살펴보면 야훼 종교 안에 민간 종교의 관습이 녹아 들어가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이 서원 하는 것이라든가 애곡하는 것, 평신도가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기간을 지키는 나실인 제도(민 6: 1-21), 안식일, 축제 등이 민간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¹⁴⁾ 심지어 S. Akerman은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꿈에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 조상 신을 섬기는 것, 천상 여왕을 섬기는 것 등이 야훼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⁵⁾

과연 야훼 종교와 타 종교, 즉 가나안 종교 사이에 연속성이 있었는가? 올브라이트는 야훼 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¹⁶⁾ 카우프만(Y. Kaufmann)은 아주 강력하게 불연속성을 주장하였다.¹⁷⁾ 한편 크로스(F. M. Cross)는 야훼 종교와 가나안 종교의 연속성을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야훼 종교의 우수성을 히브리 서사시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¹⁸⁾

14)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57-161쪽.
 15) S. Akerman, *Under Every Green Tree: Popular Religion in Sixth-Century Judah* (HSM, 46), (Atlanta: Scholars Press, 1992), 215쪽.
 16) W. F. Albright,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London: Athlone Press, 1968).
 17) Y. Kaufmann, "The Bible and Mythological Polytheism," *JBL* 70/3 (1951), 179-197쪽.
 18)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스트롬(G. W. Ahlströme)과 핀켈스타인(I. Finkelstein) 등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팔레스타인의 내부에서 찾는 역사학자들이며, 이들의 노력과 더불어 종교학에서도 야훼 종교와 가나안 종교, 즉 민간 종교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¹⁹⁾

한편 구약은 대부분 단일신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은 야훼의 분깃이며, 이스라엘은 야훼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미가는 당시의 종교 현실인 다 종교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만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 4: 5).

이처럼 단일신론은 타 민족이 섬기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은 야훼만 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하며, 그 땅은 야훼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야훼만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강조된 설화가 바로 나아만 설화이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 병이 나은 후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특별히 간청하는 것이 있었다. 먼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번제나 화목제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야훼께만 드리겠다고 다짐하였다(왕하 5: 17). 아마도 거룩한 땅의 흙을 가져가서 그 흙을 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계획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간청하였다. 우선 형식부터 다르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형식은 나아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간구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간청의 내용은 파격적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다. 타 종교의 신전에서 다른 신을 숭배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야훼께 용서를 간청하는 것이다. 「개정」에 나아만이 “몸을 굽히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트팔렐 형인 **יִתְפַּלֵּל**(브히쉬타하와야티)인데, 이 단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 G. W. Ahlströme, *Aspects of Syncretism in Israel's Worship*. (Lund, Gleerup, 1963), 12-14쪽; Idem, “Some Remarks on Prophets and Cult,” J. Coert Rylaarsdam(ed.), *Transitions in Biblical Scholarship*.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113-129 쪽; I. Finkelstein, “The Emergence of Israel in Canaan: Consensus, Mainstream and Dispute,” *SJOT* 5 (1991/2), 47-59쪽.

어는 “숭배하다, 예배드리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사 19장 18절에서 시리아 왕이 림몬 신전에서 “경배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림몬 신전에서 해야 할 행동은 그 예배 의식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만의 간청에 엘리사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평안히 가시오.” 엘리사는 “절대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마시오”라고 하지 않았다. 나아만의 경우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답변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브리커만(E. J. Brickerman)은 주장하기를,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율법서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⁰⁾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그 당시의 신학에 비추어 보아 나아만의 간청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훼의 땅인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만 섬겨야 하지만, 외국에서 외국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타 종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사 45: 4)고 하시면서 고레스가 야훼 종교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사 44: 28)로 부르셨고, 심지어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사 45: 1)²¹⁾로 부르기도 하셨다.

후대에 이르러 구약은 유일신관이 강조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단일신론적인 본문을 유일신론적인 본문으로 변경시킨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 b: 이는 당신밖에 다른 이가 없고
- c: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삼상 2: 2)

삼상 2장 2a절과 2c절에서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타나는데, 2b절이 이상하게도 2인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라틴어 역에는 2b절이 빠져 있고, LXX

20) E. J. Bickerman, “The Babylonian Captivity,” W. D. Davies(ed.), *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352-353쪽.

21) LXX 에는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으로 수정되어 있다.

에는 b와 c가 도치되어 있으며, b를 “이는 당신밖에 거룩한 이가 없고”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b 부분이 후대에 첨가되어 단일신적인 내용이 유일신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짐작된다.

물론 구약이나 신약의 최종 본이 유일신관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신론적인 내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신약이 유일신적이라는 주장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천사나 사탄이나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일신론적이지 유일신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²²⁾ 원래 천사는 가나안 만신전에서 하위 신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 1:5)라는 말씀도 유일신 신앙으로 보기 힘들다. 유일신 신앙이라면 빛이나 어둠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야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 55:6b-7).²³⁾

이처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최종적으로 유일신관으로 수렴되지만, 곳곳에서 단일신론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다신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적인 이원론을 수용하면서 유일신론적인 내용이 약화된 것처럼 구약에서도 다신론적인 국제 종교적 상황에서 유일신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19장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8세기 후반이며, 아직 유일신관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시대다. 이 시대의 야훼 종교의 신관을 유일신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일신론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훼를 섬기지만, 이집트나 앗수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시온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22) K. L. Nol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 형근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9) 346-347쪽. 원제는 K. L. Nol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Seminar, 83), (London: Continuum, 2001).

23) 윗글 356-357쪽

나라와 민족을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동시에 각 나라들이 섬기는 종교도 야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언서에서나 지혜문학에서 천상회의를 인정하고 천사와 사단과 같은 영물을 인정하듯이, 다른 종교의 신들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단일신론이다. 다만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야훼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와 앗수르가 복이 되어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야훼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간의 대화와 종교간의 협력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또 다른 부분인 소위 “열방 예언”(암 1: 3 - 2: 16; 사 13-23장; 렘 46-51장; 겔 25-32장; 습 2: 4-15)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열방 예언에서 열방을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였는가? 외국에 대한 예언에서 강조되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야훼의 통치권이다. 그리고 주로 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 예언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 기준을 살펴보면, 주로 윤리적인 기준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압이 심판 받았던 죄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든 죄(암 2: 1)”를 살펴보자. 모압을 심판한 기준은 야훼를 모독하거나 유다를 괴롭힌 죄가 아니었다. 모압이 이웃인 에돔과의 갈등 속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가 된 뼈 가루는 아마도 회에 섞여서 건물 지을 때 외벽을 바르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뼈를 불태운다는 것은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요, 잔인한 관습이다. 동시에 후손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정신적 테러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나 정신적 테러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왕의 뼈를 불사른다는 것은 단순히 시체를 훼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왕의 무덤을 부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사람의 뼈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그 제단의 신성함을 파괴시켜 더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왕하 23: 20). 이처럼 왕의 뼈를 불사른다는 것은 왕을 조상으로 섬기는 제단을 비롯한 무덤의 신성함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후손들은 뿌리가 뽑히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모욕과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정신적인 테러 행위이다. 이 점을 주목하여 모압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긴다고 해서 심판 예언을 선포하

지 않았다.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였다. 만일 다른 종교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심판하였다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국 나라들은 각기 자신들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국을 심판하면서도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이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압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 통곡하고 있다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렘 48:31). 여기서 예언자가 직접적인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백성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사야도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였다: “내 마음의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음이여 ...”(사 15: 5).

하나님은 모압 백성이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모압 사람들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요인이 하나님과 모압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바냐의 경우는 심판의 기준으로 “내 백성”에 대해 비방하고 교만한 것을 들었다(슥 2: 8-10). 그리고 심판의 내용 가운데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쇠잔케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슥 2: 11). 그러나 이 내용을 곧 바로 타 종교 비판으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쇠잔케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요, 야훼의 통치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예언하였다(슥 2:11). 즉 하나님의 만국 통치권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서를 해석할 때 타종교 숭배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주목하여, 모든 것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문의 진의를 흐리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모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학자들이 유다를 심판하는 문맥인 암 2장 4절에 나타나는 ‘거짓’(כזב 카자브)이라는 단어를 우상이나 다른 신일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해석은 LXX 번역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LXX는 “그들이 만든”이라는 구절을 첨가하여 이 단어를 ‘우상’이라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개정」에도 각주를 달아 ‘거짓’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 밝혀 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과 번역이 올바른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예언서에서 주로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로, 앓수르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사 28: 15-17; 호 7: 13; 12: 2). 따라서 반 앓수르 반란에 동참하여 방황한 유다의 행동을 아모스가 책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단어가 ‘우상’이나 ‘다른 신’을 가리키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²⁴⁾ LXX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의역을 할 때도 있지만, 단어를 첨가하여 의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도 구절을 첨가하여 의도적으로 내용을 수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원래 역사적인 의미였던 것이 비 역사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하이스(J. H. Hayes)는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이사야는 배교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결코 책망한 적이 없었다. 만일 남쪽(유다)에서 배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면 이렇게 잠잠한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²⁵⁾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시온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에 역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집트와 앓수르는 분명 야훼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숭상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 이집트여, 나의 손으로 만든 앓수르여”(사 19: 25)라고 하시면서, 이집트와 앓수르가 이스라엘과 같이 복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러한 예언(설교)은 사르곤 2세 시대에 앓수르와 이집트간의 경제적 우호 관계가 형성되던 상황 속에서 선포된 것이며, 이집트에 이주한 이스라엘 사

24) J. H. Hayes, *Amos,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 &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88), 103쪽.

25) 윗글

람들이 태양 성을 비롯한 다섯 도시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에 선포된 것이다.

구약이 유일신관으로 수렴되어 있지만, 천사를 비롯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여전히 다신론적인 내용과 단일신론적인 내용도 보존되어 있으며, 다신론적인 내용이 단일신론적으로, 그리고 단일신론적인 내용이 유일신론적으로 변경 수정된 본문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보다 보편적인 윤리를 기준으로 열방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고레스 왕과 같은 타 종교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타 종교인인 이집트 백성과 앗수르 백성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종교의 다름에 관계없이 만국의 주인으로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종교간 대화와 종교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6. 참고문헌

김 태훈, “앗시리아 역사문서와 사마리아 함락,” 「구약논단」 15집 (2003년 10월), 195-222쪽.

장 대규, “이사야 6장의 마체바의 의미와 기능 연구,” 「구약논단」 28집 (2008년 6월), 67-87쪽.

Ahlströme, G. W., *Aspects of Syncretism in Israel's Worship*, (Lund: Gleerup, 1963).

_____, “Some Remarks on Prophets and Cult,” J. Coert Rylaarsdam(ed.), *Transitions in Biblical Scholarship*,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113-129쪽.

Albright, W. F.,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XXXII,” *VT* 9 (1959), 339-346쪽.

_____,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London: Athlone Press, 1968).

Akerman, S., *Under Every Green Tree: Popular Religion in Sixth-Century Judah* (HSM 46), (Atlanta: Scholars Press, 1992).

Browne, L. E., “A Jewish Sanctuary in Babyonia,” *JTS* 17(1916), 400-401쪽.

Budde, K., *Das Lied Mose's, Deut. 32*,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20).

Chong, Joong Ho, “The Song of Moses and the Hoshea-Pekah Conflict,” Emory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0.

_____, “Were There Yahwistic Sanctuaries in Babylon?” *Asia Journal of*

- Theology* 10 (1996), 198-217쪽.
- Cornill, C.,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Freiburg I. B. und Leipzig: J. C. B. Mohr [Paul Siebeck], 1896).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_____, "Yahweh and the God of the Patriarchs," *HTR* 55(1962), 225-259쪽.
- Davies, W. D.(ed.), *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Elat, Moshe,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Neo-Assyrian Empire with Egypt," *JAOs* 98(1978), 20-34쪽.
- Finkelstein, I., "The Emergence of Israel in Canaan: Consensus, Mainstream and Dispute," *SJOT* 5 (1991/2), 47-59쪽.
- Hayes, J. H., *Amos,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 &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88).
- Kaufmann, Y., "The Bible and Mythological Polytheism," *JBL* 70/3 (1951), 179-197쪽.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Löhr, M., "Das Lied des Moses," *Protestantische Monatshefte*, 7 (1903), 1-31쪽.
- Meyer, R., "Die Bedeutung von Deuteronomium 32.8f. 43[4Q] für die Auslegung des Moseliedes," A. Kuschke(eds.), *Verbannung und Heimkehr, Festschrift W. Rudolph*,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61), 197-209쪽.
- Na'aman, N., "The Brook of Egypt and Assyrian Policy on the Board of Egypt," *Tel Aviv* 6 (1979), 63-90쪽.
- Noll, K. L.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소 형근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9), 원제는 K. L. Noll, *Canaan and Israel in Antiquity: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Seminar, 83; London: Continuum, 2001).
- Rad, G., von, *Deuteronomy (OTL)*,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 Sawyer, J. F. A., "Blessed be my people Egypt (Isaiah 19.25): the context and meaning of a remarkable passage," J. D. Martin/P. R. Davies(eds.), *A Word in Season: Essays in Honour of William McKane*, (Sheffield: JSOT Press, 1986), 57-71쪽.
- Spalinger, A., "The Year 712 B. C. and its Implications for Egyptian History," *JARCE* 10(1973), 95-101쪽.
- Skehan, P., "A Fragment of the 'Song of Moses' Dt. 32 (37-43) from Qumran," *BASOR* 136(1954), 12-15쪽.

- Tadmor, H., "The Campaigns of Sargon II of Assur: A Chronological-Historical Study," *JCS* 12(1958), 22-40쪽.
- Winter, P., "Nochmals zu Deuteronomium 32: 8," *ZAW* 75 (1963), 218-223쪽.
- Wright, G. E., "The Lawsuit of God A Form-Critical Study of Deuteronomy 32," B. W. Anderson/W. Harrelson(eds.), *Israel's Prophetic Heritag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2), 26-67쪽.

검색어

이사야 19: 16-25

타종교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투고일: 2010년 3월 18일

심사일: 2010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Prophets and other religions - Focusing on Isaiah 19:16-25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Isaiah 19 includes remarkable passages. Egypt and Assyria, symbols of oppression and brutal tyranny, are united in harmony with Israel and blessed by the Lord of hosts; “Israel will be the third with Egypt and Assyria, a bless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nd Assyria the work of my hands ...”(Isa. 19: 24-2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cover the views of the Prophetic Books towards other gods and other religions while interpreting Isaiah 19: 16-25.

During his 720-719 B. C. campaign, Sargon II, the king of Assyria, began a policy of cooperation and mutual alignment with the Delta Egyptians. And at that time, Jews were living in Egypt, especially in five cities including ‘Sun city.’ Also there were altars of Yahweh in Egypt like the temple in Elephantine. This situation is the background of Isaiah 19: 16-25.

Although monotheism is dominant in the Old Testament, we can find polytheism and henotheism easily. In Deuteronomy 32: 8-9 and passages of Psalms(Ps. 82: 1, 6-7; 97: 7, 9), polytheism is apparent. In the story of Naaman(2 Kg. 5: 17-18) and prophecy of Micah(Mic. 4: 5), we see

henotheism. Sometimes, for example the passage of 1 Samuel 2: 2, originally concerned henotheism, is revised as a passage of monotheism.

In oracles against foreign nations, prophecies of judgement are announced based on common ethics rather than religious reasons. Although Cyrus was a pagan and the king of Persia, he was announced as “my(Lord’s) shepherd”(Is. 44: 28) and “his(Lord’s) anointed”(Is. 45: 1).

God called peoples of Egypt and Assyria as well as Israel as ‘my people’ without regard for the differences of religion. God rules all nations and all peoples as the Lord of universe, as the Creator of the earth and heavens. This is a clue to solve problems of religious conflict.

Keywords

Isaiah 19:16-25

Other Religions

Polytheism

Henotheism

Monotheism